

# “배설과 할보를 아시나요?”

## 문화재청,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 출간

일본강점기 약탈됐던 ‘경천사 10층 석탑’, 일본 신사에 있던 ‘북관대첩비’, 한국전쟁으로 소실될 뻔 했던 상원사·화엄사·해인사, 도난됐던 ‘건봉사 진신치아사리’의 공통점은 누군가에 의해 우리 문화재로 지켜졌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청장 이강우)이 6월 5일 발간한 <수난의 문화재 이를 지켜낸 인물이야기>에는 ‘경천사 10층 석탑’ 등 문화재를 지킨 이들의 이야기가 있어 관심을 모은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 복도에 자리한 국보 제48호 경천사 10층 석탑(이하 경천사 탑)이 해체된 채 포장 속에서 11년간 일본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얼마나 될까?

1907년 경천사 탑의 아름다움에 반했던 일본 궁내대신 다나카 미쓰

아키는 경천사 탑을 일본에 가져가려고 고종 황제의 명을 사칭했다. 개공군민 등이 이를 반대하자 200여명의 무장병력까지 동원해 총·칼로 경천사 탑을 강탈했다.

경천사 탑 강탈 사실에 조정도 습죽인 때 영국인 어네스트 베셀과 미국인 호머 헬버트는 이 사실을 각각 <대한매일신보>와 <코리아 리뷰>에 보도했다. 베셀과 헬버트의 보도에 경천사 탑의 강탈을 부정하던 일본 정부는 강탈 사실을 시인했다. 국내외 여론의 계속된 반환 요구에 결국 다니카는 경천사 탑을 반환해야 했다.

경천사 탑은 한국에 돌아왔지만 훼손이 심했다. 광복 때까지 경복궁 근정전 회랑에 해체된 채 방치됐던 탑은 1959년 경복궁 안에 세워졌다.

1962년 12월 국보 제48호로 지정됐지만, 수차례의 보수에도 경천사 탑 보존의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았다.

1995년부터 2004년까지 10년간 다시 해체·보존·복원 작업이 끝나고 수백점으로 조각났던 경천사 탑은 국립중앙박물관에 우뚝 섰다.

문화재 관계자들은 경천사 탑의 현재는 대한민국 문화재 보존 과학의 쾌거라 말한다. 하지만 경천사 10층 석탑은 일본의 문화재강탈을 목숨 걸고 막았던 개공군민과 진상을 세상에 알렸던 베셀(베셀과 할보(헬버트)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책은 러일전쟁 때 일본이 가져가 아스쿠니 신사 구석에 방치했던 ‘북관대첩비’를 돌려받은 초산 스님이 아기도 담고 있다. ‘북관대첩비’는 1709년 함북 길주에 입진왜란 전승

을 기록해 세운 것으로 2005년 반환받아 2006년 북한 측에 전해졌다.

한국전쟁 당시 오대산 상원사를 불태우려던 군인들에게 “법당과 함께 나도 태워달라”고 해 상원사를 지킨 한암 스님, 1951년 8월 해인사를 폭격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합천 해인사를 지켜낸 장지랑 前 공군참모총장 이야기, 팽치산 토벌을 위해 지리산 화엄사를 소각하라는 명령을 무작을 태우는 것으로 대신했던 故 차일혁 총령 이야기, 도난된 건봉사 진신치아사리가 돌아온 이야기 등도 실렸다.

6월 5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출간기념회에서 문화재청 이강우 청장은 “문화재 소실은 역사와 문화를 잃는 것이다. 시대를 앞서 ‘문화재 지킴이’ 역할을 했던 분들



국립중앙박물관 중앙복도에 위치한 경천사 10층 석탑.

을 기억하자”고 말했다. 국보 제1호 승례문이 화마로 소실된 지금, 지리산 화엄사를 지킨



6월 5일 출간 기념회에서 문화재청 이강우 청장이 책 이야기 주인공인 초산 스님 등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위). 어네스트 베셀, 장지랑 前 공군참모총장, 차일혁 총령, 호머 헬버트(좌부터).

故 차일혁 총령의 말이 문화재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운다. “절을 태우는 데는 한나절이면 족하지만 절을 세우는 데는 천년 이상의 세월도 부족하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석가탑 ‘묵서지편’ 연구자 모인다

6월 2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서 학술세미나

‘묵서지편’ 논쟁 3라운드 시작됐다. 불국사 석가탑 중수기 ‘묵서지편’은 2007년 10월 노명호·이승재 교수(서울대)가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이강우)에서 1차 판독 내용을 발표해 이목을 집중시켰다. 2008년 1월 한국학중앙연구원(회장 주보돈) 정기발표회에서 “판독순서가 잘못됐다”며 최연식 교수(목포대)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묵서지편’은 학계의 쟁점이 됐다.

조계종 총무원(원장 지관)과 불국사

(주) 성태는 2008년 6월 20일 10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불국사 석가탑 묵서지편의 기초적 검토-판독과 용어의 분석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열어 ‘묵서지편’ 논쟁에 다시 불을 당길 전망이다. 학술세미나는 박지선 교수(울산대), 노명호 교수(서울대), 이승재 교수(서울대), 최연식 교수(목포대), 주경미 교수(부경대), 박상국 원장(한국문화유산연구원)이 각각 주제발표 후 종합토론을 벌인다.

조동섭 기자

## ‘종교와 계율’ 학술적 조명

6월 21일, 동국대서 보조사상연구원 학술대회 개최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6월 21일 오후 1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종교와 계율’을 주제로 제31회 월례학술회의를 연다. 1부 백도수 연구원(금강대 HK연구원)이 ‘구전전승에 의한 원시불교 교단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서명

원 교수(서강대 종교학과)가 ‘불교와 기독교의 수행과 계율’을 발표한다. 2부는 자유주제로 회철 스님(동국대 강사)이 ‘<선문강요집>에 나타난 입제 삼구 연구’를, 정도 스님(동국대 강사)이 ‘경봉 선사의 선사상 연구’를 발표한다.

조동섭 기자

## 일본 미술품에서 한국의 모습 찾다

11월 2일까지 국립중앙박물관 ‘일본 미술의 복고풍’展

한국이 고구려를 그리워한다면 일본은 아스카를 그리워한다. 20세기초 일본에는 아스카 시대(538~710) 중심의 고대문화 부흥 움직임이 일었다. 아스카 시대는 백제 성왕의 화신 혹은 미륵의 화신이라 칭해졌던 쇼오토쿠 태자를 중심으로 한 시대다. 한반도 불교 문화를 수용했던 아스카시대 미술품에서는 한국 문화와 닮은 꼴이 쉽게 찾아진다.

이런 가운데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이 16세기 이후 일본 미술품 30여점을 한자리에 모아 ‘아시아의 전통을 동경하며-일본미술의 복고풍展’을 마련했다.

전시실에는 아스카시대 소재의 그림, 조각 등 근대 일본미술 품이 전시됐다.



연담 김명국의 ‘달마도’를 연상시키는 후가이 예군의 ‘달마도’와 에밀레종이라 불리는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과 꼭 닮은 고토 세이이치의 조각 ‘훈연’ 등 전시품 등을 본 관람객들은 모두 “한국 문화재와 판박이”라 입을 모은다.

한편 6월 25일 오후 7시 30분에는 ‘다치바나노 오이라쓰메가 무궁화꽃을 듣다’를 주제로, 7월 16일 오후 7시 30분에는 ‘에도시대 문인화와 한시’를 주제로 한 ‘일본 미술의 복고풍’에 관한 큐레이터와의 대화도 마련됐다.

전시는 국립중앙박물관 아시아관 일본실서 11월 2일까지 열린다. (02)2077-9556

조동섭 기자

성덕대왕 신종의 비천상과 꼭 닮은 고토 세이이치의 ‘훈연’.

## 황룡사지 진신사리 친견 못한 분?

불교중앙박물관 6월 29일까지 무료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법하)은 개관 1주년 특별전 ‘법-소리 없는 가르침’의 관람객 1만명 돌파를 기념해 6월 3일부터 29일까지 무료입장을 실시한다.

불교중앙박물관 관계자는 “전시 유물 가운데 643년 자장 스님이 당나라에서 모셔와 황룡사 구층목탑에 봉안했던 진신사리를 친견하기 위한 관람객이 많았다. 법보전 막이 내리는 6월 29일까지 황룡사지 진신사리

를 친견하려 보다 많은 불자들이 박물관을 찾기도 바쁘다”고 말했다.

4월 28일 시작한 불교중앙박물관 ‘법보전’에는 국보 9점, 보물 25점 등 총 162건 197점의 성보가 전시됐다.

한편 황룡사 출토 진신사리는 법보전이 끝나면 국립중앙박물관에 반환돼 한동안 친견이 어렵다. (02)2011-1960

조동섭 기자

## 운문승가대 일본 하나조대와 학술교류 맺어

학사학위없어도 하나조노대학원 석사과정 진학 가능

청도 운문사 승가대(학장 명성)는 6월 5일 일본 입제종 종립 하나조노대(花園大, 총장 아베코산)와 학술교류 협약을 맺었다.

운문사 승가대와 하나조노대는 학술교류 협약을 통해 학술연구 및 교수·학생 교류 등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운문사 승가대는

“이번 협약으로 운문사 승가대를 졸업한 스님들은 학사학위가 없어도 일본 하나조노대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운문사 승가대는 지난 1월 중국 칭화대(淸華大)와도 학술교류 협정을 체결했다.

손병천 대구지사장

**불상, 석탑, 석등, 사찰공사 전문업체 일심석재**  
대한민국 석공예명장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동선: 행동선은 석상이 아름답고 천 년의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아 절반이 많고 쉽게 부식되는 중국산 수입 물과는 차원이 다른, 석질이 우수한 일산에서만 생산되는 무철분 화강암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 금마면 동고도리 931-1  
전화 0631)836-0231 팩스 836-7527  
011-673-7527

김옥수 석공예명장

- 대한민국 석공예명장
- 전라북도 무형문화재(제36호)
- 대한명인(06-1222)
- 現 일심석재/일심산업 대표이사
- 전국기능올림픽 석공예 2위
- 대한불교조계종 금산정사 강로패 수상
- 원광대학교 대학원 한국사상과정수로
- 대한광업진흥공사 석공예기능 훈련장사 역임
- 전국 기능경기대회 심사위원 역임
- 노동부장관 표창
- 대구기능대학교 명예교수
- 사)돌문화보존회 이사장
- 제9회 돌문화보존위원회의 위원장

인터넷 블로그에 ‘김옥수’ 또는 ‘일심석재’를 검색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한국불교의 전통(傳統)을 이어 정토세계(淨土世界)를 열자

### 제6차 전국염불만일회 11차년도(2008년) 흥천 연화사 여름성지대회

전국염불만일회에서는 1998년부터 염불 성지를 찾아 금강산 건봉사, 전남 대원사, 설악산 백담사, 해남 미황사, 대구 팔공산 은해사, 제주도 법화사, 충남 덕숭산 수덕사, 경주 불국사, 설악산 계곡 만해마을을 순례하였고, 올해는 동양최대의 아미타불이 모셔져 있는 흥천 연화사에서 개최합니다.

- 일시: 2008년 7월 27일 ~ 7월 29일 (2박 3일)
- 장소: 흥천 연화사
- 내용: 염불정진의 본행사
- 대상: 개인, 사찰, 단체, 가족단위
- 문의: 02)732-1215~17
- 접수: 전화신청후 은행계좌입금 국민은행 023-21-0667-309 염불만일회 농협 053-02-128104 염불만일회
- 동참비: 서울에서 버스로 출발하실 분 (10만원) 개인직접 연화사로 오실 분 (7만원) 차량과 숙박관게로 선착순 접수마감함.

全國念佛萬日會  
110-140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0번지 동산불교회관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